

## 바이오스페이스, 일본서 체성분분석기 돌풍

국산 체성분분석기가 일본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체성분 분석기 전문기업인 바이오스페이스는 자사의 체성분분석기 브랜드 인바디(InBody)가 체성분분석기 본거지인 일본에서 1000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2월28일 발표했다.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성분분석기는 대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으로, 총 매출액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성분 검사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수분, 단백질, 체지방, 무기질 등의 구성성분을 분석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일본은 전체 가구의 20%가 가정용 체성분분석기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체성분 분석기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선진국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감안한다면 1000대 판매돌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이오스페이스는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2>